

둘째 주 - 야곱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아래의 질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5-7 분 동안 나누십시오:

- 지난 한 주간 제일 기분 좋았던 일과 나빴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또는 여러분 주변에서 하신 일들이 있었습니까?

성경을 소리 내어 읽기

창세기 25 장 19-28 절: 에서와 야곱의 출생

창세기 27 장 1 절 - 28 장 5 절: 이삭의 축복

창세기 32 장 3-32 절: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1. 여러분은 본문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 a. 여러분은 야곱, 에서, 이삭, 리브가를 각각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들의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 b. 이삭의 축복의 원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 c. 지금 압복 강가에 있는 야곱이 20 년 전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했습니까?
 - d. 야곱은 자신과 씨름하려는 이 사람과 어떻게 마주합니까?
2. 본문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까?
 - a. 왜 오늘 본문의 인물들은 서로를 편애한다고 생각합니까? 왜 리브가는 자신의 남편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야곱이 축복을 받기 원했다고 생각합니까? 왜 이삭은 자신의 두 자녀 중 한 명에게만 축복할 수 밖에 없습니까?

왜 야곱이 중요한가?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신 한 민족의 한 구성원이었습니다.¹ 그는 압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장차 그의 후손들이 불러질 이름이기도 하지요. 구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 받은 한 민족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이택하신 민족과의 각별한 관계를 통해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한 분 뿐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려고 택하신 민족인 것입니다.

¹ 창세기 12 장 1-3 절.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이고,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는 자”, 또는 “속이는 자”입니다.² 모태에서 나오면서부터 야곱은 그의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면서 이미 “속이는 자”, 또는 “부정행위를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교활하고, 영리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야곱이 한 명의 호적수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의 삼촌 라반. 나중에 야곱의 장인이 되기도 할 라반은 야곱을 속여 무려 20 년동안 야곱을 그의 집에 부당하게 매어 놓고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합니다.³ 이것도 모자라, 야곱은 마침내 라반의 집을 떠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도 에서와 그의 군대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야곱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장자에게만 허락되는 축복도 야곱에게 가로챈을 당한 형 에서. 그랬기에 야곱은 압박 강가 너머에 있는 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그와 그의 가족의 목숨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바로 이 때, 야곱의 심령이 초조해지고 두려워할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잡고 놓지 않습니다.

어떻게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룬 자”, 또는 “겨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과 겨룬 자, 하나님과 씨름한 자가 또 있을까요? 누가 그 어둔 무덤 속에서 사흘 동안 씨름하기를 그 손과 발과 몸의 상처를 그대로 입은 채 부활하기까지 했습니까? 누가 그 자신과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였습니까? 바로 참 야곱 되신, 참 이스라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것도 도둑질하지 않으셨고, 누구를 속인 적도 없지만, 죄의 대가를 자기 자신의 몸에 짊어 매웠습니다. 야곱이 에서와 라반에게 겪은 고난은 어쩌면 야곱 자신이 자초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겪은 고난은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인해 그 고난을 몸소 짊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참 이스라엘의 자손이 된 우리를 위해, 또 오래 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너희 자손이 하늘에 별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많게 하겠다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말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으로 야곱, 즉 이스라엘의 후손들입니다. 나사렛 예수도 그 혈통을 받아 태어났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참 이스라엘, 구원 받은 한 가족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릅니다.⁴

² 다만, 여러분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속이는 자나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³ 창세기 28-31 장.

⁴ 여기서 말하는 교회(영어로는 대문자 C 의 “the Church”)는 어떤 특정한 건물이나 공동체의 모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가리킵니다. 어떤 특정한 시대와 역사와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모든 그리스도인, 이 세상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나 선량함이나 지혜로는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로운 택하심 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키고, 한 가족, 한 교회를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그의 소유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하십니다.⁵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3. 우리는 어떻게 이 본문을 우리의 오늘날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 a.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소중한 좋은 선물들을 과소평가 하거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대한 적이 있습니까?
 - b. 여러분은 편애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편애를 받거나, 아니면 부당하게 차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 c. 여러분은 하나님과 “씨름”한 적이 있습니까?
 - d. 여러분은 혹시 상처가 동반되는 축복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창세기를 해석하는 여섯 가지 법칙: 시간이 충분하다면 같이 읽으십시오.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각자 집으로 가져가서 읽어도 괜찮습니다.

1. **문학적 해석:** 장르—서술적 형태의 이야기(narrative).⁶
2. **역사적 해석:**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이었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손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혈통은 야곱이 하나님께 새로이 받은 이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 **신학적 해석:**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야곱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시고, 당연히 축복을 받아야 할 첫째가 아닌, 둘째를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4. **문화적 해석:** 장자, 즉 첫째 아들은 상속권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이 중요한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겨 야곱에게 팔아버렸지요. 누구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5. **성경의 큰 그림:**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새로운 이름을 지음 받은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⁵ 로마서 6 장 1-11 절.

⁶ 지난 주의 “창세기를 해석하는 여섯 가지 법칙”을 참고하십시오.

6.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님은 야곱이 그의 가족과 함께 피난길에 오를 때에도, 에서와 그의 군대와 마주친 그때에도 그와 함께 계시고,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에서와 야곱 간의 화해는 화목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영상 시청하기

아래의 영상은 야곱의 일생을 잘 요약하였습니다. 함께 시청하십시오. “Read Scripture: Genesis Ch. 12-50,” from *The Bible Project*. 4 분 20 초부터 5 분 20 초까지.

<https://www.youtube.com/watch?v=F4isSyennFo&t=205s>

기도로 마치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바라본 주제들, 즉 속임수, 배신, 편애, 또 깨어진 가정 등의 주제들을 우리 자신의 기도에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를 우리의 공로 대로 사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가치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선하지도 않고, 가치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영원한, 터무니 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자비하신, 놀라우신 분입니다. 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불러 주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편애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진 가정을 인해 상처 받았다면, 그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중 누군가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직 응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람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그의 하나님, 그의 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